分明

佛來世中行
常人迷不醒
毒者甚害佛
善惡已分明

一九九五年七月二十六日

원명(圓明)

마음에 眞善忍(쩐싼런) 품었나니
자신의 수련은 백성에게도 이롭도다
대법이 마음을 떠나지 않거니
언젠가는 반드시 초인이 되리라

1994년 2월 28일

求正法門

功能本小術
大法是根本

一九九四年四月二日

항산(恒山)을 거닐며

구름 걸린 산마루 그대론데 도는 어디 있느뇨
옛 도관에는 유유히 유람객 오누나
속인은 심오 속의 묘함을 몰라
옛 사찰 이용하여 검은 돈만 버누나

1995년 6월 11일

遊恒山

山恒雲嶺道何在
古觀悠悠遊客來
常人不知玄中妙
利用古廟發黑財

一九九五年六月十一日

정법문을 구하다

공능은 본디 작은 재간이요
대법만이 근본이로다

1994년 4월 2일

得法

眞修大法
唯此爲大
同化大法
它年必成

一九九四年七月七日

현공사(懸空寺)를 거닐며

백장 절벽에 절(寺)이 걸려 있는가
대법 널리 전하느라 한가하지 않았다네
금생에 절벽 옛 절 다시 거니나니
법이 올발라 훗날 많은 절에 전해지리라

1995년 6월 11일

遊懸空寺

百丈山崖寺中懸
洪傳大法難得閒
今生重遊古崖寺
它日法正萬寺傳

一九九五年六月十一日

법을 얻다

진정으로 대법을 수련하나니
오로지 이것만이 큰 일이로세
대법에 동화하나니
언젠가는 기필코 성취하리라

1994년 7월 7일

緣

大覺心更明
得法世間行
悠悠數千載
緣到法已成

一九九四年八月二十七日

삼계(三界)를 벗어나다

속인의 고락 생각하지 않음이
수련자요
세상득실 집착하지 않음이
나한이로다

1995년 5월

跳出三界

不記常人苦樂
乃修煉者
不執於世間得失
羅漢也

一九九五年五月

인연

크게 깨달아 마음 더욱 밝나니
법을 얻어 세간에서 행하도다
유유한 수천 년
인연 닿자 법은 곧 이뤄지는도다

1994년 8월 27일

了願

同心來世間
得法已在先
它日飛天去
自在法無邊

一九九四年八月二十七日

대법이 미혹을 깨뜨리다

유유한 만사는 눈앞 지나가는 연기구름
속인의 마음을 미혹케 하는도다
망망한 천지는 어찌하여 생겼는고
중생의 지혜를 무력케 하는도다

1995년 1월 27일

大法破迷

悠悠萬事過眼煙雲
迷住常人心
茫茫天地爲何而生
難倒衆生智

一九九五年一月二十七日

소원을 풀다

한 마음으로 세상에 내려와
법 이미 얻었구나
훗날 하늘로 날아가면
끝없는 법 속에서 유유자적하리라

1994년 8월 27일

助法

發心度衆生
助師世間行
協吾轉法輪
法成天地行

一九九四年八月二十八日

우주는 맑고 맑아
법광에 동화되네
원만하여 날아갈 때
함께 천당으로 돌아가리라

1994년 12월 31일

宇宙朗朗
同化法光
圓滿飛升
同回天堂

一九九四年十二月三十一日

법을 돕다

중생을 제도하리라 품은 마음
스승을 도와 세상에서 행하네
나를 도와 法輪(파륜)을 돌리나니
법(法)을 이루어 천지간에 행하네

1994년 8월 28일

因果

非是修行路上苦
生生世世業力阻
橫心消業修心性
永得人身是佛祖

一九九四年九月十五日

동화 원만(同化圓滿)

건곤은 망망한데
일륜(一輪)이 금빛 뿌리네
각자(覺者)가 세상에 내려오나니
천지가 함께 향하도다

同化圓滿

乾坤茫茫
一輪金光
覺者下世
天地同向

인과(因果)

수련의 길에 고생 있음이 아니라
생생세세 업력이 가로막음이로다
마음 굳혀 소업하고 心性(씬씽) 수련하리니
영원한 사람몸 얻어야 부처로다

1994년 9월 15일

迷中修

常人難知修煉苦
爭爭鬥鬥當作福
修得執著無一漏
苦去甘來是眞福

一九九四年九月十五日

진수(眞修)

마음에 眞善忍(쩐싼런) 품었나니
法輪大法(파룬따파) 이뤄지리라
시시각각 心性(씬씽) 수련하나니
원만은 묘하기 무궁하여라

1994년 12월 27일

眞修

心存眞善忍
法輪大法成
時時修心性
圓滿妙無窮

一九九四年十二月二十七日

미혹 속의 수련

수련의 고달픔 속인은 알기 어려워
싸우고 다툼을 복으로 삼는구나
집착을 남김없이 수련하면
고진감래라 진짜 복이로다

1994년 9월 15일

實修

學法得法
比學比修
事事對照
做到是修

一九九四年十月七日

재도(再度)

法輪(파룬)이 항상 돌며 중생제도하나니
법을 배우고 법을 얻어 心性(씬씽) 수련하누나
말법시에 바퀴 또 돌리나니
인연 있는 사람 심법(心法)이 밝으리라

1994년 12월 27일

再度

法輪常轉度衆生
學法得法修心性
末法之時輪再轉
有緣之士心法明

一九九四年十二月二十七日

착실한 수련

법을 배우고 법을 얻어
배움을 견주고 수련을 견주나니
일마다 대조하여
해 내어야 수련이로다

1994년 10월 7일

佛法圓容

廣傳大法
度人出五行
恒心修煉
圓滿超三界

一九九四年十月十五日

불법 원용(佛法圓容)

대법을 널리 전하나니
사람을 제도하여 오행을 벗어나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련하나니
원만을 이뤄 삼계를 벗어나는도다

1994년 10월 15일